

굴 패각·죽은 물고기, 친환경 농업 효자

전남도 올 패각 활용 폐화석비료 1만4000t 생산 공급 전남서부양식수협, 어분 1400여t 생산 20억원 매출

해안가에 방치된 꼬막·굴 패각과 광어 양식장에서 발생한 죽은 물고기 등 애물단지인 친환경농자재 원료로 사용되면서 해양폐기물 문제해결과 친환경농자재 공급, 역대 소득 창출까지 1석3조의 효과를 거둬 주목받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굴 패각과 죽은 물고기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지만 '친환경농어업법'에는 천연원료로 생산한 농자재는 친환경농자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굴 패각을 원

료로 생산한 폐화석비료(토양개량제) 1만4000t(15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전국 공급량의 38%에 해당되는 양이다. 폐화석비료는 패각을 100% 사용한 천연비료로, 토양개량과 병충해 방지, 수확량 증대 효과가 뛰어나다. 전남도내에는 총 5개의 생산업체가 있으며, 전남지역 연간 패각 발생량의 36%인 약 1만9000t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 업체 중 폐화석비료를 생산한 해

남 풍원석회는 순천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와 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품(GR) 인증을 받아 연간 1만3000t의 비료를 생산해 9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임준영 풍원석회 대표는 "패각은 토양개량제를 비롯해 가축사료 첨가제, 인공어초, 방수처리제 등의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귀중한 자원이다"며 "앞으로도 패각을 이용해 농자재와 기능성식품 첨가제 등의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죽은 물고기를 이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한 업체도 있다. 완도 전남서부어양양식수협은 강진과 해남, 진도, 신안지역 양식장에서 연간 약 4000~5000t의 죽은 물

고기를 수거해 비료 원료인 어분 1400여t을 생산, 2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수협이 생산한 어분(60%), 굴분 등이 첨가된 친환경 비료 '광어플러스'는 채소와 과수작물의 수확량 증대 효과가 있어 농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농협 정부 보조지원 유기질비료로 등록돼 전국 농가에 공급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양한 수산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자재 개발과 생산시설 설치 지원 등을 계속 확대하겠다"며 "폐화석비료 공급 확대는 물론 친환경농자재 산업을 전남 블루이코노미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이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5월의 남도 전통술 '하늘담' 선정

순천주조 매실 전통주



전남도는 5월을 대표한 남도 전통술로 순천에서 생산된 600년 전통의 매실을 사용한 순천주조의 매실 전통주 '하늘담'을 선정했다. '하늘담'은 순천의 매실농가와 농협 협사의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2017년 순천시와 순천주조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만들어진 순천시 공식주조, 매실 전통주 브랜드 '하늘담'은 '순천만의 하늘을 담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술을 담은 병은 불투명·블랙코팅을 사용한 고급 디자인을 채택했다. 알코올 도수는 16%로 여러 연령층이 즐겨 찾고 있으며, 전남도가 주최한 '2019년 남도 전통술 품평회' 청주·약주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술 맛과 품질에 대해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매실 전통주 '하늘담'은 매실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에서 생산중인 전통주에 대한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촉 '젠걸음'

4월 한달간 1억원 이상 판매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식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민·관이 함께한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남연합회와 함께 지난달 11일 시작해 3주에 걸쳐 목포 해상케이블카 해안로와 여수 세계박람회장 인근에서 개최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사장을 방문,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판매에 직접 나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판매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된다. 품목은 반건조 우럭·돔을 비롯 홍어회, 곱창김, 참굴비 등이며, 1만 5000원에서 3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식 어업인들을 돕고, 소비자들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4월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를 통해 광어와 우럭, 전복, 건어물 등을 6회에 걸쳐 총 1억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촉행사에 참여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일 오전 목포시 해안로 인근에서 전복김, 흑산도 홍어, 곱창 김, 굴비 등 수산물을 운전자들에게 건네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로 확대

우체국 쇼핑몰에 전용관 개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해 비대면 판로 확대에 나섰다. 전남도는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해 최근 우체국 쇼핑몰에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전용관'을 개설해 54개 업체 251개 제품을 입점시켰으며, 신규 입점 기업을 계속 발굴중이다. 현재까지 6000여건의 판매를 통해 72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우체국 쇼핑몰 전용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판매 촉진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15~30%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또 전남사회적기업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도 제품 할인과 택배비 지원,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제품 매

출 증대에 발 벗고 나섰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쿠팡을 비롯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유명 오픈마켓 판로확대를 위해 입점과 홍보를 지원 중이다. 이밖에 오프라인 비대면 판매를 위해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둘째·넷째주 금요일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사전주문 받아 배송해주는 '비대면 금요일'도 펼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농어촌공사, 한전, 한전KDN, 한전KPS 등이 참여했으며, 나주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의 동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예정이다. 영성열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더 많은 온·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토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다음달 30일까지 일자리정책 아이디어 공모

전남도는 다음달 30일까지 '일자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선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일자리 정책 사업에 반영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일자리창출 지원방안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이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남도청 해당 부서들의 검토를 마친 후 일자리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제안은 자료집으로 발간해 전라남도 일자리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시에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들어선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 전국에 3곳...울 20명 입학

정부 공모사업인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지역으로 순천시가 선정됐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신규 사관학교 3개소를 공모함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전남지역연합회 합작지원센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순천시와 협의해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복합 기능형 체험점포로 강의실과 PC교육장, 비점포형 창업 체험 공간, 멘토링 상담공

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창업 기본교육과 전자상거래 창업체험, 1인 방송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한 신사업 유망아이템을 가진 예비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된다. 중기부는 올해 국비 15억원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입교생 20명을 선발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앞으로 매년 약 10억원의 국비를 들여 연간 40명의 스마트 소상공인 졸업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예비 소상공인으로 선발된 입교생에게 기본·심화교육 1개월, 점포경영 체험과 일대일 멘토링 4개월을 지원하며, 수료와 동시에 창업 시 사업화 자금을 최대 2000만

원(자부담 50%)까지 지원한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마케팅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사관학교 유치는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온라인에 기반한 신사업 분야의 창업 지원을 강화해 열악한 소상공인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 부산, 경기, 전북 등 전국 9개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업을 희망한 지역 예비 소상공인을 발굴, 이들에게 신사업 분야의 창업교육부터 현장 실습, 실전 창업에 이르기까지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보건환경연, 22개 시·군 토양오염 조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우려 지점을 선정해 토양오염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토양오염 예방과 복원을 통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올해 중점 오염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공장지역 등 55개 지점과 교통관련 시설 지역 64개 지점을 포함한 총 119개 조사지역, 221개 지점이다. 검사는 선정된 지점의 지형·풍향·지하수 유동과 오염 가능성, 오염원 유형 등을 고려해 표토 또는 심토까지의 시료를 채취해 중금속 8종을 비롯 일반항목 13종,

토양산도 등 총 22개 항목에 대해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정밀 조사명령 등 후속조치가 내려지며, 오염토양 정화·복원 등에 대한 보전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덕안 토양폐기물과장은 "토양오염은 토양 생물과 지하수 오염 등 2차 오염을 초래할 수 있고, 복원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철저한 사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속·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양질의 토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